

## 이재명 “국민과 함께 하겠다” 대선 출마 공식화

대표 사퇴...“새로운 일 시작할 것”  
주가·환율 문제 국가 혼란상 때문  
“韓, 꿈수 말고 국민 삶에 관심을”  
김동연·김두관·김경수 등도 채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입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사말도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걸겠습니다’로 바꾸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한 이 대표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좋아졌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저의 삶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요즘은 그런 비난이 많이 사라졌다”며 “지금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회의에서 “퇴임하는 지금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주가가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 갑자기 치솟지 않았다. 국가의 혼

란상 때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을 거론하며 “한 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꿈수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분은 우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한명 한명의 국민이 모여 만든 것이고, 그 한명 한명의 목숨과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민들이 겪는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이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부터 최고위 진행 의사봉을 넘겨받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책임 기간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고, 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새로운 길을 가시는데, 그 장도에 국민과 저희가 함께 가겠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권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자 비명(비이재명)계 주주들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미 관세 외교로 경제 전문성을, 김두관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으로 당의 ‘적통’임을 부각했다.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저울질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 3면에 계속 ▶ 관련기사 3·4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 美·中 관세전쟁 ‘쇼크’... 코스피 2300선 붕괴

美 상호관세 정식 발효...증시 폭락  
환율 1500원 눈앞...금융위기 후 최고

미국의 상호 관세 정식 발효와 중국의 맞불 관세에 따른 글로벌 무역 전쟁 불안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추락했고, 원·달러는 사흘 연속 올라 금융위기 수준인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4% 떨어진 2293.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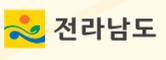
것은 2023년 10월 31일 2277.99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팔자’로 이날도 1조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29% 급락한 643.39에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06억원과 219억원을 사들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외국인은 968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650선 아래로 끌어내렸다.

환율은 1500원에 바짝 붙었다. 원·달러는 전일 오후 증가(1473.2원) 대비 10.9원 오른 1484.1원에 마감했다. 증가 기준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0.8원 오른 1484.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487.6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금융시장 패닉은 마·중 무역 전쟁 불안에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짙어진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대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중국에 104% 관세를 천명했다. 뉴스

남도의 맛깔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 남도 음식 거리

맛있는 만남이 있는 행복한 남도음식거리에서  
남도의 맛과 멋을 즐겨보세요.

목포 평화광장 맛의 거리	여수 해양공원 해물삼합거리	순천 순천웃장 국밥거리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	광양 광양불고기파크·섬진강망덕포구횟집거리	담양 창평국밥거리
곡성 압록참깨·은어거리	고흥 장어음식거리	보성 벌교 태백산맥꼬막거리	장흥 바지락·키조개거리	강진 돼지불고기거리·마량미항횟집거리	해남 닭코스요리거리
무안 낙지특화거리	영광 굴비거리	장성 황금장어거리	완도 전복음식명가	신안 섬뽕낙지거리	